

이수경

1963년 서울 출생 / 서울 기반 작업

이수경은 풍부한 서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설치 미술, 조각,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 회화, 드로잉 등 다양한 분야로 작업의 스펙트럼을 꾸준히 확장해 왔다. 그녀는 과거와 현재, 생명과 죽음, 현실과 비현실, 세속적이거나 성스러운 것, 개인과 타인, 사회와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쳐 왔다. 또한 이수경은 고대 신화와 이야기에서 얻은 영감과 자신의 경험을 연관지으며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이루어 내고 있다.

이수경은 여러 차례의 개인전 《이수경: 이동식 사원》(세르누치 미술관, 파리, 2023), 《달빛 왕관》(아트선재센터, 서울, 2021), 《먼길 이야기》(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2021), 《Whisper Only to You》(카포디몬테 미술관, 나폴리, 2019), 《믿음의 번식》(아뜰리에 에르메스, 서울, 2015), 《내가 너였을 때》(타이페이 현대 미술관, 타이페이, 2015)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또한 이수경은 큐레이터 크리스틴 마셀(Christine Macel)이 기획한 《The 57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Viva Arte Viva》(2017)에 초대되었다.

이수경의 작품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시카고 미술관, 영국 런던의 영국박물관, 브리스톨 박물관, 홍콩 M+ 미술관, 스페인 ARCO 컬렉션,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국립 예술관, UAE 아부다비 살라마 빈트 합단 알 나흐얀 재단에 소장되어 있다.

작품 소개

<번역된 도자기> (2002-현재 진행 중)

이수경은 노동 집약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버려진 도자기 파편을 재구성하여 유기적이고 정교한 조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파편은 도자기 명인들이 완벽한 작품 외에 작은 결함도 용납하지 않고 부수어 버린 도자기에서 나온 조각들이다. 작가는 "금"과 "금(틈)"이라는 국어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금으로 틈을 메우며, 전통 도자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수경의 수작업 과정은 미리 어떤 형태를 정하고 작업하기보다는 손이 가는대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따라가며 제작이 되며, 각각의 조각들은 유기적으로 진화한 듯 이어져 독창적인 형태로 완성된 작품이 된다.

이 시리즈는 2001년 이탈리아 알비솔라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와 연장 선상에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한국 도자기에 익숙하지 않은 현지 도예가에게 조선 시대 도자기에 관한 시를 바탕으로 12개의 도자기를 제작하도록 의뢰했다. 이러한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만들어진 <번역된 도자기>는 독특한 서사가 담긴 혼종적 존재로 탄생했다. 2010년 이후로 이수경은 한국의 백자와 청자는 물론, 북한 및 유럽의 도자기 파편도 수용하며 다양한 문화의 재료와 전통을 융합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번역된 도자기_2007 TVW 10>, 2007
도자기 파편, 에폭시, 24K 금박, 122x84x81cm.
캔사스 대학교 스펜서 미술관, 로렌스, 미국 소장



<번역된 도자기: 이상한 나라의 아홉 용>, 2017
도자기 파편, 스테인레스 스틸, 알루미늄 기둥, 에폭시, 24K 금박
492(h)x200x190cm
2017년 이탈리아 57회 베니스 비엔날레, *VIVA ARTE VIVA* 전시 전경



<번역된 도자기_천_2012>, 2012
도자기 파편, 24K 금박.
2012년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쌍둥이 성좌》 전시 전경
사진 © 국립현대미술관

<달빛 왕관> (2019-현재 진행중)

"나는 왕관이 부처, 예수, 그리고 다른 성인들의 머리 위에 묘사된 후광(nimbus)의 대체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다."

이수경은 절대적 권력, 호화로움, 영광의 상징인 빛나는 왕관의 의미에 물음을 제기하면서, 머리에 쓰기에는 너무 크고 무거운 몸처럼 변형된 왕관을 만든다. 크리스탈, 유리, 거울 등 반짝이는 재료들로 장식된 이 왕관들은 작가의 <매일 드로잉> 시리즈와 <불꽃> 시리즈에 자주 등장하는 천사와 소녀의 얼굴, 기도하는 손, 팔과 다리, 동식물 등의 무수하게 많은 조각상들과 얽혀 있다. 황홀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극적으로 과장된 미학을 보여주는 이 그로테스크하고 화려한 왕관들은 욕망과 절망, 매혹과 공포 사이의 이중성을 구현한다. 한편 이수경은 한국 고유의 신화에서 영감을 받아 신비로운 여성상을 창조함으로써 여성이 지닌 복합적인 정체성과 주체성을 재고하였고 그 의미를 <달빛 왕관> 시리즈에서 보여주고자 하였다.



2021년 한국 아트선재센터 《달빛 왕관》 전시 전경



(위) 2021 년 한국 아트선재센터 《달빛 왕관》 전시 전경
 (아래) <달빛 왕관_다정한 자매들_동쪽 산꼭대기>, 2021, 황동, 에폭시, 철, 레진, 114x73x74cm

<불꽃> (2005- 현재 진행중)

이수경의 <불꽃> 회화는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암시적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며, 전통 한지 위에 짙은 붉은 색의 주사(진사)를 사용해 정교하게 표현된다. 주사는 부적과 불화에 흔히 연관되는 소재이다. 이 작품들은 초현실주의자들의 드로잉처럼 본능적이고 자동 기술적인 방식을 통해 창작되었다. 이수경은 불꽃을 생명과 죽음, 죄와 치유의 상징으로 본다. 작가는 한가지 행위에 극도로 몰두하며 공을 들이는 작업 과정을 거쳐 표현된 자가 증식하는 불꽃을 통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성찰적 태도를 보여준다.



<불꽃 2013-2>, 2013, 한지에 경면주사, 100x100 cm



<불꽃 2013-4>, 2013, 한지에 경면주사, 100x100 cm

<불꽃 변주> (2012- 현재 진행중)

<불꽃>과 <불꽃 변주>는 이수경이 2004 년에 시작한 매일의 수행적 드로잉인 <매일 드로잉>에서 발전된 작품들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자기 성찰을 실천하기 위해 그려진 시리즈이다. 초기 드로잉들은 만다라를 연상시키며, 내면의 깨달음을 불러일으키는 듯한 명상적이고 초월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다.

<매일 드로잉>과 <불꽃>회화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한 <불꽃 변주>는 디지털로 만들어진 대칭의 이미지를 세심하게 붓으로 채색하는 방식으로 제작되며,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것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것들을 좌우로 복제한 듯한 기묘하면서도 숭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비단 족자에 표현된 이 회화들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상들과 티베트 불교 제단화의 대칭적 공간 구성을 반영한다. 대칭적으로 그려진 <불꽃 변주> 속 그림들은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화면을 가득 채우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림 안에 담긴 다층적이고 비유적인 의미를 숙고해보게 한다.



(위) 2012 년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쌍둥이 성좌》 전시 전경
(아래) <불꽃 변주 1-1>, 2012, 비단에 채색, 70x120cm/ 족자 195x138cm

<쌍둥이 춤> (2012)

<쌍둥이 춤> 퍼포먼스와 싱글채널 비디오 작품에서 동일한 기념품 인형처럼 꾸며진 두 명의 무용수는 거울에서 서로 반사된 것 같은 춤을 선보인다. 무용수들은 조선 시대의 기생 무용인 교방춤을 재현하며, 영원하고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후광에 둘러싸인 듯 꿈결처럼 떠다닌다. 이들의 정교하고 매혹적인 춤은 여성의 다산과 내적인 힘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상화된 여성상을 구현한다.

영상: <https://vimeo.com/151764725>



<쌍둥이 춤>, 2012

싱글 채널 비디오와 사운드, 11 분 52 초

퍼포먼스 및 비디오 디렉팅: 이수경, 퍼포먼스: 이정화, 정송이, 음악: 장영규,

의상: 김영석, 메이크업: 소인경, 카메라 및 영상 편집: 차은택

<노래> (2010, 2012)

<노래>는 한국 전통 성악 음악인 가곡의 공연과 무대 디자인을 모두 아우르는 작품으로, 전통 가곡은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소규모 한국 전통 악기 앙상블이 반주를 맡는 것이다. 가곡은 전통 정가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양식으로 여겨진다.

이수경은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높은 음역대와 우아한 음색으로 이루어진 노래를 전자 장치나 음향 증폭기 없이 원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독특한 무대를 설계했다. 이 음악은 고요하고 우아한 선율을 지니며, 명상적인 분위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 영상: <https://vimeo.com/31987004>





<노래-우리의 시도가 지연되는 동안>, 2010
무대 디자인 및 퍼포먼스 디렉팅: 이수경, 프로듀서: 김인선(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퍼포먼스: 정마리, 무대 도면: 김영진, 영상 편집: 김준하, 의상: 이수경

<그곳에 있었다>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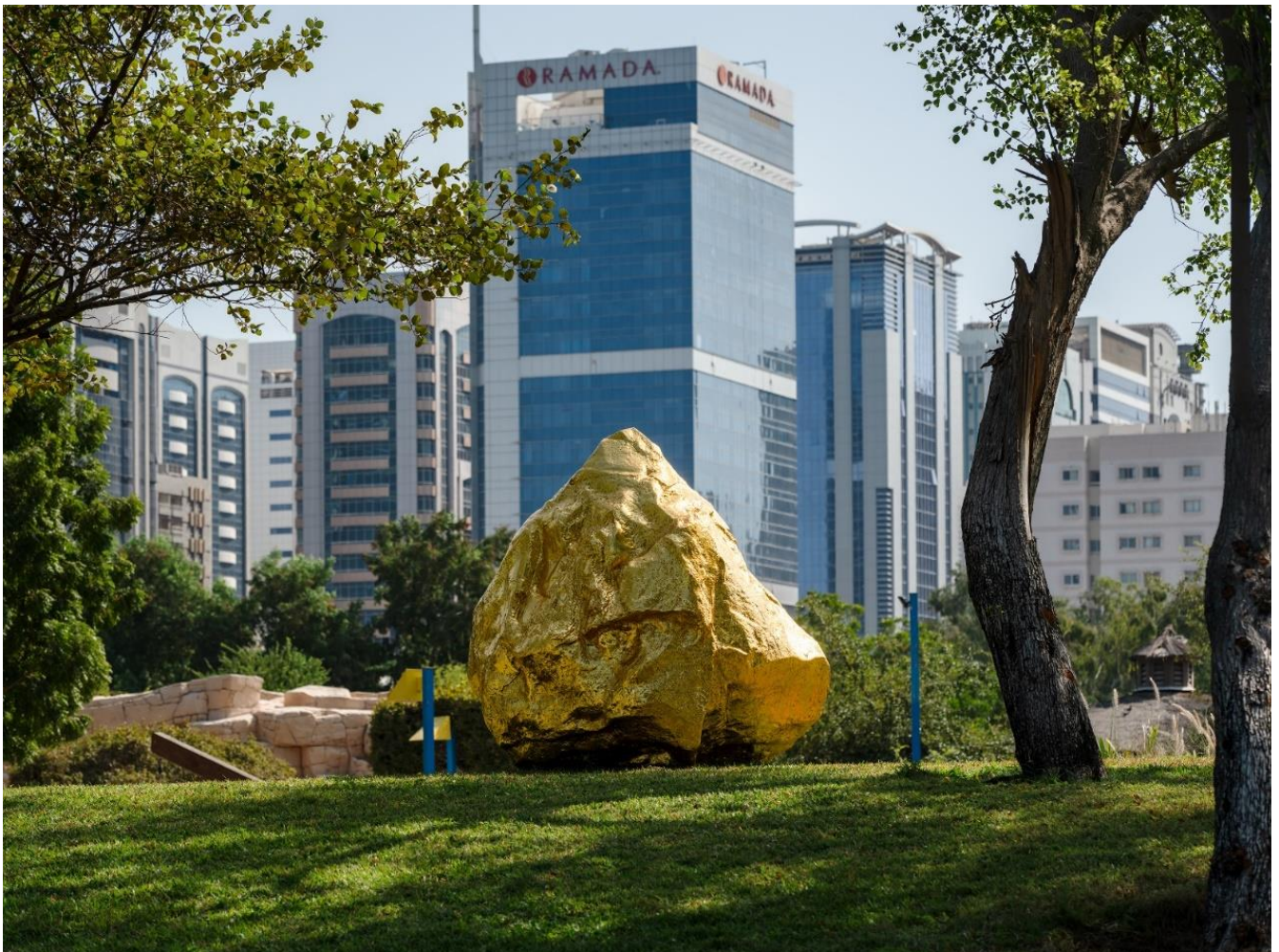
"그곳에 있었다"는 AI로 생성된 바위 형태에 24K 금박이 덮여 있는 작품이다. 이 바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익명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표면이 금박이 덮혀 있고 나니까 이 가상의 바위는 영원하고 불변의 존재로 변모하게 되었다.

한국의 70%는 바위산으로 덮여 있는데 그 중에는 고대 돌무덤 문화와 의식의 흔적을 간직한 돌들이 많다. 큰 바위 앞에 서면, 나는 종종 미세한 진동을 느끼곤 한다. 아마도 그것은 내 자기장이 돌의 광물에 반응하여 생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바위들은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 같으며,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내포하고 있어서인지 바위는 신비롭고 강력한 존재감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 상상의 바위를 한국에서 아부다비로 보내는 것에 나는 애잔한 마음이 들었다. 이 긴 여정을 기리기 위해, 나는 이 바위에 전통 한국 음악가가 부르는 노래를 헌정하기로 했다. 나는 가수에게 “너는 진짜이다; 너는 돌이 금으로 변하는 연금술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 새로운 땅에 평화와 공존의 정신을 가져다 주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메시지는 가사없이 멜로디 만으로도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전통 한국 음악, 구음으로 표현되었다. 이런 감성이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아부다비에 도착했을때, 에미리트 음악가가 이 낯선 창작물을 새로운 노래로 환영하며, 새로운 집에 도착한 것을 축하했다.



<그곳에 있었다_아부다비 2024>, 2024
FRP, 24K 금박, 우레탄 페인트, 스테인레스, 172x187x182cm
아부다비(Abu Dhabi), 헤리티지 공원(Heritage Park) 설치 전경



<그곳에 있었다_알 아인 2024>, 2024
FRP, 24K 금박, 우레탄 페인트, 스테인레스, 160x185x183cm
알 아인(Al Ain), 힐리 고고학 공원(Hili Archaeological Park) 설치 전경



<그곳에 있었다_아부다비 2024>, 2024, 싱글 채널 비디오, 6분 3초
한국 퍼포먼스 장면/ 퍼포먼스: 김태영



<그곳에 있었다_아부다비 2024>, 2024, 싱글 채널 비디오, 6분 16초
아부다비 퍼포먼스 장면/ 퍼포먼스: 사이프 알 알리(Saif Al Ali)